

# 조선어에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의 역사적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원사 교수 박사 김 영 황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째였습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  
였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우리 말의 우수성의 하나는 문법구조가 매우 째여있는 점이다. 매개 품사들의 역사적  
인 형성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것이 가지는 문법적특성을 옳게 밝히  
는것은 우리 말 문법구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언어규범화를 확립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론문에서는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들의 역사적형성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조선어에는 체언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로서의 관형사와 용언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로서의 부사가 있다.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품사와 관련하여 확증하여야 할 문제는 관  
형사가 생겨나 그것이 자립적품사로 확립되는 과정과 상징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문법적기능이 다양화되는 문제이다.

## 2. 본 론

### 2.1. 자립적품사로서의 관형사의 확립과정

#### 2.1.1. 련체적수식기능의 단어

세나라시기 조선어를 반영하고있는 향가에는 관형사로 볼수 있는 자료들이 극히 부  
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있다.

- 毛冬居叱沙(모든 것사)(죽지랑가)
- 皆佛體(한 부테)(고행가)
- 皆吾衣(한 내히)(회향가)

《毛冬》을 독해함에 있어서 《조선고가연구》(1942)에서는 《모든》으로, 《향가해석》  
(1956)에서는 《모둘》로 독해하고있는데 그것이 체언수식기능을 가지고있는데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있다.

한편 《皆》를 《조선고가연구》에서는 《한》으로 독해하면서 《한》은 《大》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가해석》에서는 그것을 《모든》으로 독해하면서 《모든(모둘)》은 현대말  
로 《모든》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것들은 다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초기국문문헌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있다.

- 모든 사롭과 六師왜 보고 7마니 몬 이서(《석보상절》 6권 30장)
- 嗔心이 한 전치라(《월인석보》 1권 14장)

기원적으로 볼 때 《모든(모돌)》은 동사 《몬다(集)》에서 파생된것으로서 체언우에서 규정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지니게 된것이다.

- 奉天討罪실씨 四方諸侯 | 몬더니 聖化 | 오라샤 西夷 또 모든니(《통비어천가》 9장)
- 모돌 도 都(《류합》 상권 19장)
- 모돌 합 습(《류합》 하권 48장)

이처럼 《몬다(集)》는 원래 동사인데 그것이 규정형으로 되면서 《都, 습》의 뜻으로 되어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 련체적수식기능이란 체언우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기능임.

- 모든 사롭과 六師왜 보고 7마니 몬 이서(《석보상절》 6권 30장)

마찬가지로 《한》도 형용사 《하다(多, 衆)》로 널리 쓰이던것인데 술어로 쓰일 때와는 달리 체언우에서는 규정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다.

- 그<sup>ㅅ</sup>기 쇠 하아(《월인석보》 1권 24장)
- 多는 할씨라(《훈민정음언해》)
- 衆은 할씨라(《월인석보》 서문 6장)
- 므쇠로 한 쇼를 디여다가(《악장가사》 정석가)

물론 많은것은 아니지만 《모든(모돌)》이나 《한》처럼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 부류가 15세기 국문문헌자료에는 물론이고 세나라시기의 향가자료에까지 나오고있는것은 주목할만 한 일이다.

우의 자료를 통하여 이 단어부류는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는데 그것이 일단 화석화되면 그 상태에서 체언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어부류가 다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에서만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 온 體 | 오로 업스며(《원각경언해》 상권 1/2. 140장)

사실상 《온》은 수사 《온(百)》과 기원을 같이하고있다.

- 百은 오니라(《월인석보》 1권 6장)

그런데 《온 體 |》의 경우에 《온》은 수사의 본래의미보다 의미폭을 훨씬 넓히고있다. 다시말하여 수사 《온(百)》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의 의미로 쓰이게 된것이다.

《온》은 《갓(가지)》과 결합하여 《온갓(온가지), 온갈》으로 되면서 새로운 문법적기능 즉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상<sup>ㅅ</sup>와 영장 온갓 이룰 모든 형의게 미디 아니 하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3권 33장)
- 百寶는 온가짓 보비라(《월인석보》 8권 7장)
- 아비 병이 극<sup>ㅎ</sup>여 온갈 약이 효험 업거늘(《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8권 48장)

또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의 다른 예로 《상넷》을 들수 있다.

- 상넷 사르문 煩惱를 몬 뻬브릴씨(《월인석보》 1권 12장)

《상넛》은 본래 한자말명사 《常例》에서 온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사 룬》과의 결합에 의하여 합성명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넛》의 경우에 규정축음소\* 《ㅅ》이 삽입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합성명사가 아니라 규정적결합을 의미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상넛》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규정축음소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면서 그 첫소리를 된소리화하는것을 이르는 말.

그러나 《상넛》가 규정축음소 《ㅅ》의 첨가없이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 내 지비서 상넛 環刀 |며 막다히를 두르고 이셔도(《월인석보》 7권 6장)
- 受生 혼 싸해 상넛 宿命을 알리니(《월인석보》 21권 93장)

이 경우에 《상넛 環刀, 상넛 宿命》의 《상넛》은 명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화한것이다.

이것은 같은 말도 규정축음소 《ㅅ》을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문법적기능이 달라진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서 《너나몬, 너나몬, 너늑, 너느, 년》을 들수 있다.

- 너나몬 祥瑞도 하며(《월인석보》 2권 46장)
- 그 밧기 너나몬 일이야 分別홀 줄 이시랴(윤선도 시조)
- 너늑 뵈흔 다 둔거운 싸홀 므던히 너기거늘(《두시언해》 13권 5장)
- 너느 나랏 王이 혼 날 다 아돌 나흔며(《월인석보》 2권 45장)
- 내 님 두읍고 년 뵈를 거로리(《악학궤범》 리상곡)

《너나몬, 너나몬, 너늑, 너느, 년》은 다 《다른》의 뜻으로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는데 이것들은 본래 《너느/년 기》으로 쓰이던 미정대명사에서 기원하고있는 말이다.

- 너느 타 他(《류합》 하권 6장)
- 半길 노푼 년기 디나리잇가(《통비어천가》 48장)
- 四海를 년글 주리여(《통비어천가》 20장)

이처럼 《너느, 년기, 년글》은 《년 기》의 각이한 격형태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너늑, 너느, 년》과 같이 그 어떤 격토의 첨가없이 각이한 변종을 가지고 쓰이고있으며 《너나몬, 너나몬》과 같은 경우에는 《너느》에 기원한 《너》와 《남다》의 규정형인 《나몬, 나몬》과 결합하여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 《아모(아므)(某)》는 뒤불이 《란(론)》을 취하여 《아ㅁ란, 아모란, 아므란, 아므론》으로 되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아ㅁ란 ㅁ 술히어나 자시어나(《석보상절》 9권 40장)
- 아므란 딛지즘 잇거든(《로결대언해》 상권 23장)
- ㅎ 이리 노랏고 ㅁㅁㅁ 또 아므론 店이 업스니(《로결대언해》 상권 35장)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 가운데서 오랜것으로는 《므스》도 들수 있는데 이것은 대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 므스 ㅎ라 너를 기들오로(《로결대언해》 하권 18장)
- 므습 호려 ㅎ시늑니(《월인석보》 1권 10장)

이 경우에 《므스》와 《므슴》은 의문대명사이다.

그런데 《므스》와 《므슴》은 그대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있었다.

○ 므스 이를 잘 하노노(《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명화전)

○ 내 또 므슴 시름 하리오(《월인석보》 21권 49장)

이 경우에 《므스》는 분명히 뒤에 오는 《일》에 대하여, 《므슴》은 뒤에 오는 《시름》에 대하여 수식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므스》는 《므스》와 같은 변이형으로 쓰이면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송강가사》 관동별곡)

그렇다면 《므스》와 그 변종인 《므스》는 의문의 대명사이면서 한편으로 련체적수식기능도 수행하고있었던것으로 된다.

그리고 《므슴》의 경우에도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대명사로도 쓰이고 또 한편으로 《무슨》이라는 의미로서 련체적수식기능도 수행하고있었다.

○ 므슴 호려 하시노니(《월인석보》 1권 10장) 대명사의 기능

○ 므슴利益 이시리오(《월인석보》 21권 49장) 련체적수식기능

그런데 《므슴》이 변이형들로 《므슴, 므스, 므슴》으로 되어서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 네 高麗 싸히 므슴 貨物 가져온다(《로결대언해》 하권 2장)

○ 므스 이를 잘 하노노(《삼강행실도》 동명화전)

○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슴 罪오(《월인석보》 1권 7장)

초기국문문헌에 의하면 다른 명사도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 여러히 다 道를 窮究호되(《통업경언해》 10권 23장)

○ 諸小王은 여러 허근 王이라(《석보상절》 13권 13장)

이 경우에 첫째것은 《여러》가 격토 《히》를 취한 명사로 되지만 둘째것은 《허근 王》에 대한 수식기능을 수행하고있으므로 기능상 같은것이 아니다.

이처럼 중세조선어에서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부류는 다른 품사에서 분화되어나오면서 여러 변이형을 취하고있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자립적품사로서의 자격을 점차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단어들로는 《모든(모들), 한, 온, 상네, 너느, 아므란, 므슴, 여러》 등 초기국문문헌에서 그 가지수가 많지 않았지만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다른 품사에서 분화되어 점차 련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관형사》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품사부류를 이루는대로 발전하게 되었던것이다.

## 2.1.2. 자립적품사로서의 관형사설정

조선어발전의 역사적과정을 볼 때 관형사가 처음부터 자립적인 품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있었던것은 결코 아니였다.

지난 시기 문법학자들은 《모든》과 《많은》이 체언앞에 놓이여 그것을 수식한다는 공통성으로 묶이여지는 문법적특징을 인정하고 그 문법적기능에 대하여 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자립적인 품사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 《대한문전》(1908)과 《초등국어어전》(1909)

그러나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의 《기난틀》에서 국어품사로서 임(명사), 엇(형용사), 움(동사), 꺾(조사), 잇(접속사), 언(관형사), 억(부사), 놀(감탄사), 꺾(종결사)의 9개 품사를 설정하고 다시 《기갈래의 난틀》에서는 개별적품사내부의 단어부류들을 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관형사에 해당하는 《언의 갈래》를 11개로 나누었다.

- ① 가르침언: 이, 그, 저
- ② 물품언: 좋은, 귀한, 무른
- ③ 물모언: 큰, 적은
- ④ 행품언: 착한, 순한, 강한
- ⑤ 행모언: 깃븐, 궁금한, 답답한
- ⑥ 때언: 이른, 늦은, 오란
- ⑦ 험언: 한, 두, 세
- ⑧ 견쭈언: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 ⑨ 모름언: 엇더한
- ⑩ 움언: 간, 먹는, 가는
- ⑪ 임언: 둘(둘집), 나의(나의 칼)

이 문법에서는 지시(가르침), 여러가지 물건의 품질(물품), 여러가지 물건의 모양(물모), 여러가지 행위의 품성(행품), 여러가지 행위의 모양(행모), 시간(때), 수량(험), 비교(견쭈), 미정(모름) 등 뒤에 오는 체언의 어떤 특징을 꾸미어주는가에 따라 나누는 경우(①~⑨)와 다른 품사에서 전성되어 쓰일 때 그 근원을 밝히는 경우(⑩~⑪)를 뒤섞고 있었다. 그 런체적수식기능의 공통성만을 중시한데로부터 《언》의 분류에서 일관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그 구성이 잡다하게 규정되었다.

이처럼 주시경은 체언우에 없하여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라는데서 《언》의 표식을 잡고 《언》의 범주에 규정어로 쓰이는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명사를 다 포함시키었다. 《언》의 이러한 잡다한 구성은 《듬》(문장성분)으로서의 《금이》(수식어)와 일치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언》의 설정에서 단어의 문장성분적기능만을 선차적으로 고려한데서 온것으로서 관형사의 독자적인 의미기능을 역사적견지에서 옳게 가려보지 못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의 품사분류에서 《언》이 드러내고있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후 《말의 소리》(1914)에서는 실질적 《기》와 문법적 《기》가 결합하여 《언》을 이루었던것을 해체하여 《크, 착하, 이러하》는 《엇》에, 《떡》은 《움》에 소속시키는 한편 《언》의 구성속에 들어있는 《ㄴ, 은, 는, 던》과 《의》를 모두 《기》로 인정하여 《꺾》에 포함시키고 토없이 《언》으로 될수 있었던 《이, 그, 저》는 《임》에 소속시키었다.\*

\* 《이, 그, 저》를 《국어문법》에서는 《밋언》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에서 온것이 아니라 본바탕부터 《언》으로 된것이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설정한 《언》과 관련한 모순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결국 《말의 소리》에서는 《언》이라는 품사를 아예 없애버리고말았다.

그후 《현금조선문전》(1920)에서는 《언씨는 명사를 지정하여 형용하는 씨》로서 반드시 임씨우에서 쓰인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관사(冠詞)를 설정하였다.

이 문법책에서 《언씨》로 들고있는 다음과 같은 네개 부류는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적이다.

- ① 고, 요, 조
- ② 한, 두, 여러, 모든
- ③ 새, 외, 둘
- ④ 어느, 무슨, 웬

이처럼 이 문법책에서는 그 어떤 토도 붙지 않고 련체적기능을 수행하는것만이 《언씨》로 렬거되고있다. 이것은 이 부류 단어의 문법화에서 상당한 정도로 정리되고 전진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관사의 련체적기능을 형용사와 비교하여보게 되면서 관사적인 형용사라는데로부터 그 이름을 《관형사(冠形詞)》로 고쳐부르게 된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조선어학》(1935)에서는 조선어의 관형사는 그것이 수식어로 사용되는 점에서 영어의 형용사(Adjective)와 같지만 영어형용사는 동사 Be와 합하여 서술어로 되지만 관형사는 서술어로 전혀 쓰이지 못한다는것을 들고 관형사를 보통관형사, 표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의문 및 부정관형사의 네개 부류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통관형사는 《보통으로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는 관형사》를 이르는데 고유조선어로 된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강, 날, 들, 통, 맨, 메, 꿏, 새, 수, 솟, 찰, 암, 울, 외, 햇, 헛》을 들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내포되어있었다. 즉 고유한 의미에서의 관형사와 형태부로서의 앞불이가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고있는것이다.

물론 단어로서의 관형사와 형태부로서의 앞불이를 구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론적전일성, 구조-형태론적전일성과 함께 단어의 기본표식인 명명적기능과 문장론적기능을 가지고있으면 관형사로 될것이며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형태부인 앞불이로 될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분석할 때 《조선어학》에서 보통관형사라고 하여 렬거한것들가운데는 관형사라기보다는 앞불이로 처리해야 할것들까지 섞여있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말본》(1937)은 일정하게 전진하였다고 할수 있다. 즉 《우리말본》에서는 《임자씨를 꾸미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어로 쓰일수 있는 일곱가지 경우를 들고 명사, 동사, 형용사가 규정어로 되는것을 관형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올벼, 훌어미, 외아들》의 경우에 《올, 훌, 외》를 《머리가지(앞불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정말 어떤씨인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무슨, 웬, 요, 그, 한》을 들고 이것들은 대명사나 수사와 어원상 동일하지만 어떤씨(관형사)로서 독특한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선행문법책에서 발로되였던 일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독특한 품사로서의 관형사의 범위를 확정된것으로서 관형사조성의 역사적과정을 일정하게 고려한것이다.

20세기초부터 많은 문법학자들의 관심사의 하나로 되여왔던 관형사문제는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그 품사적특징이 리론적으로 정식화되고 그 종류도 확정되게 되었다.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에서는 관형사란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부류로서 형용사와는 달리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규정어로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합적특성을 리론적으로 해설하고있다.(449~450페이지)

첫째로, 관형사는 형용사와 달리 명사로 명명되는 대상의 표식만을 나타내며 대명사로 지시되는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기때문에 관형사는 대명사와의 결합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있다.

례를 들어 《전선에서도 용감했던 네가 아니냐.》에서 형용사 《용감했던》은 대명사 《네가》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관형사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것이다. 혹시 《그것을 어느 누가 새겼는지?》와 같은 문장에서 관형사 《어느》가 대명사 《누가》와 결합하는 일이 있느냐 이것은 극히례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로,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가 나타내는 수량이나 순서에 대하여 그 어떤 표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관형사와 수사와의 결합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 《근, 단, 제》와 같은 관형사는 수사앞에서 수량적 또는 순서적표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어 《근 삼십이 된 사람, 단 하나도 없다, 제 룽십, ...》등에서 관형사 《근, 단, 제》는 수사 《삼십, 하나, 룽십》과 결합하고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셋째로, 관형사에는 그 어떤 토도 취할수 없다.

결국 관형사는 특히 명사와만 관련을 가지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것만큼 이것을 체언앞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것처럼 인식하면서 그전에 일반적으로 《런체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없다.

이 문법책에서는 관형사를 그 의미의 특성에 따라 성질관형사(례: 막다른, 별별, 별의별, 본, 순, 새, 허튼, 탄, 여느, 오른, 옛, 윈)와 분량관형사(례: 각, 근, 단, 모든, 매, 여러, 온, 온갖)로 나누었다.(450~452페이지)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에서는 관형사의 품사적특성을 론하면서 특히 관형사와 앞불이의 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였고 단음절관형사인 《온, 별, 탄, 새, 진, 제, 각》 등은 그것이 어떤 명사와 결합할 경우에 관형사로서 명사와 결합한것인지 또는 앞불이로서 말뿌리와 결합한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 구별적표식으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있다.

첫째로, 관형사는 그자체가 한개 단어로서 자립적인 소리마루를 가지며 다음단어와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음하지만 앞불이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로, 관형사는 논리적연계가 가능한 문장에서 다른 어떤 명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수 있으나 앞불이는 그자체가 한 단어안의 형태부이기때문에 단어조성수법에 의하여 극히 제한된 말뿌리와만 결합할수 있다.

셋째로, 적지 않은 관형사는 그 다음단어와의 사이에 다른 규정어가 끼일수 있으나 앞불이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94~95페이지)

그리고 이 책에서는 관형사의 단어조성문제에 대해서도 서술하면서 말뿌리합성과 품사전성이 기본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결국 관형사의 문법적특성에 대한 리론적해명은 1960년대에 와서야 일단락짓게 되었다.

이처럼 문장에서 런체적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부류인 관형사는 조선어의 발전력사에서 후기적으로 형성되어 점차 증가되면서 자립적품사로까지 되는 과정을 밟은것으로서 조선어의 고유한 품사라고 말할수 있다.

## 2.2. 상징어의 증가와 그 문법적기능의 다양화

조선어문법구조의 역사적발전에서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는 상징어의 대량적인 증가와 그 문법적기능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리나 모양을 본따서 나타내는 상징어는 언어의 형상적표현에 쓰이는것으로서 그 사용의 범위는 비교적 넓다.

그러나 상징어와 룰조어는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

고려가사에서는 다양한 룰조어\*들이 쓰이고있었다.

\*룰조어란 일정한 선률을 보장하는 말을 이르는것임.

### 청산별곡(靑山別曲)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서경별곡(西京別曲)

西京이 아줄가  
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툇 아줄가  
닷곤 툇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줄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청산별곡》에서는 구절마다에서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를 되풀이하고있으며 《서경별곡》에서는 분절들에서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를 반복하여 일종의 룰조를 보장하고있는데 이것은 결코 상징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문법적기능을 수행하고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것들은 가사의 룰조를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것으로서 뒤에 오는 용언에 대해서 수식하는 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러한것들을 룰조어라고 하여 상징어와 엄격히 구별하는것이다.

상징어가 그 어떤 사물현상의 각종 특성을 감각적으로 상징하여 표현하는것이라면 룰조어는 사물현상의 특성과 무관계하게 가사에 음악적인 운률을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징어가 일정한 언어적인 표현수단으로 되는것과는 달리 룰조어는 단지 가사의 운률을 조성함으로써 그 음악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할뿐이다.

우리 말에서 의성의태적의미로 쓰이는 상징어의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 정석가(鄭石歌)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구은 밤 닻되를 심고이다

고려가사인 《정석가》에 나오는 《삭삭기》는 세모래를 밟는 소리를 형상적으로 《바삭 바삭하게》라는 의미로 표현하고있는 상징어로서 가사에서 생략된 《밟는》행동에 대한 수식의 문법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상징어가 련용수식적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그것은 상징부사로 인정된다.

상징부사는 15~16세기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점차 다양해지고있다.

- 밥을 작작 먹어 썰리 습세 들어서며(《소학언해》 3권 24장)
- 촌촌 십고 드손 술이나 더운 물에나 습세고(《태산집요》 5장)
- 이 물이 쇠 거름 긋터 즈늑즈늑 호덕 재니라 (《로결대언해》 상권 11장)
- 東風이 건듯 부러 積雪을 헤터내니(《송강가사》 관동별곡)
- 꽃나모 가지마다 간딤 족족 안니다가(《송강가사》 사미인곡)
- 麻衣를 니미 츠고 葛巾을 기우 쓰고 고브락비기락 보논거시 고기로다(《송강가사》 성산별곡)
- 달 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로계집》 루항사)
- 측 업슨 집신애 설피설피 물너오니(《로계집》 루항사)
- 너울너울 춤을 추니(《청구영언》 백구사)
- 어화 등등실 써서 노자(《청구영언》 황제가)
- 녹음밤초 우거져 금잔디 좌를록 '인 고딕 (《렐너춘향수절가》)

《작작, 촌촌, 즈늑즈늑, 건듯, 족족, 고브락비기락, 허위허위, 설피설피, 너울너울, 등등실, 좌를록》은 전형적인 상징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상징어인 《즈늑즈늑》은 소의 걸음걸이를 형상적으로 묘사한것이며 《고브락비기락》은 고기가 물속에서 노는것을 형상

적으로 표현한것이고 《허위허위》와 《좌를록》은 뒤에 오는 《다라가서》와 《'인》에 대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고있어 상황부사로 된다.

이것은 그후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문장에서 술어로도 쓰이게 되었다.

- 입을 못보니 가슴이 답답, 어린 樣姿 고은 소리 귀에 쟁쟁(《청구영언》상사곡)
- 東風이 건듯 불 적마다 이리로 접두적 저리로 접두적 (《청구영언》백구사)
- 발 미딴 썩걸 바람 조차 펼펼(《별녀춘향수절가》)
- ...

기암은 층층, 장송은 락락  
에이 굽으려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렴 드리운듯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아 살살  
으르릉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 가티 흐터지니

(유산가)

우의 실례들에서 보듯이 《상사곡》에 나오는 《가슴이 답답》과 《귀에 쟁쟁》에서 《답답》과 《쟁쟁》은 《ㅎ다》와 결합한 《답답ㅎ다》와 《쟁쟁ㅎ다》에서 《ㅎ다》를 생략한 상태에서 술어로 쓰인것이다. 그리고 《백구사》에 나오는 《접두적》 역시 《ㅎ다》가 생략된 상태에서 술어로 쓰인것이며 《유산가》의 《주춤ㅎ야》는 당당하게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이로부터 상징어는 부사의 한계를 벗어난것으로 하여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품사로 보아야 한다면 《상징사》라는 품사까지 설정하자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 《현대조선어》(2)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 106~113페이지

그 견해에 의하면 상징어는 아무런 형태조성적접사나 토의 도움이 없이 쓰인다는 점에서 다른 부사와 같지만 극히 제한된 일부 경우에 《옥신각신이 없다, 아이구 깜짝이야》와 같이 《이, 이야》와 같은 토가 붙을수 있으며 그리고 문장에서 상황어로 될뿐아니라 술어로도 될수 있고 심지어 규정어로도 될수 있다는것이다.(예: 북소리가 둥둥, 으스스 달밤, 광 소리)

끝으로 단어조성적특성을 들수 있는데 어음변화의 수법(예: 동동 — 둥둥, 줄줄 — 줄줄), 접사의 수법(예: 불그스름, 얼떨떨), 말뿌리합성의 수법(예: 반짝반짝, 너울너울) 등 여러 수법에 의한 단어조성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는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

그리하여 상징어는 《상징사》라는 독립적인 품사로 될수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게 된것이다.

이것은 17세기이후에 상징어가 일층 풍부화되고 그 쓰임이 다양해지면서 용언수식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규정어나 술어까지 쓰이게 됨으로써 그 문법적기능에서 일정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다양화된 결과이다.

이처럼 조선어발전의 역사적과정에 체언수식기능을 담당한 단어부류는 관형사라는 하나의 자립적인 품사로 설정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용언수식적기능을 수행

하는 상징어부류는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용언수식기능을 담당한 품사부류인 부사에 속하면서도 그 쓰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문법적기능이 일층 다양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것이다.

### 3. 결 론

조선어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상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체언이라고 하고 서술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수식성을 나타내는 품사를 수식언이라고 하는것은 자연스러운것이다. 그렇다면 감동사는 응당 독립언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결국 조선어의 품사는 크게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의 4개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할수 있다.

조선어품사가운데서 체언과 용언에 대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수식언은 문장에서 규정어나 상황어로 되는것이 기본기능으로 된다. 그러나 상징어와 같이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난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자립적인 품사로 보면서 《상징사》를 설정하기도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조선어에서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단어가 걸어온 력사적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부사에 비해서 관형사와 상징부사가 걸어온 길은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어 복잡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수식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단어들의 문법적특성과 그것이 걸어온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일층 심화시키는것은 앞으로 우리 말 문법구조의 우수성을 밝히고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마리어 관형사, 상징사, 상징부사, 수식기능